



2011년 12월 8일 목요일 서울특별시 주관, 서울시립미술관 주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된다. 이번 심포지엄은 2012년 제7회를 맞이하는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(미디어시티 서울 2012)의 일환으로 열리며, <뉴미디어아트: 새로운 이슈와 상황들> 이라는 주제 아래 뉴미디어아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. 문화예술, 과학, 테크놀로지와 융화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직면하여 현시대 예술의 범주 전환과 그에 대한 전망을 가늠해보는 흥미로운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.

발제자로는 유진상 제7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총감독을 비롯하여 루스 베인 (엑스페리멘타 액팅 디렉터), 마크 그뢰드 (바젤아트페어 큐레이터), 유키코 시카타 (미디어아트 큐레이터), 올로프 반 빈든 (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제너럴 디렉터) 등이 참여한다. 질의자로는 이원곤 (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부교수), 김남수 (국립극단 학술출판팀 선임연구원) 등이 참여하여 토론을 이끌어 간다.